

호남권생물자원관, 상동나무 유전체 최초 해독

2만2021개 유전자 확인 성과 추출물에 항암 등 기능성 함유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인 상동나무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했다고 15일 밝혔다.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난다는 의미의 '생동목(生冬木)'에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상동나무는 제주도, 완도, 진도 등 남해안에 주로 자생하며 나무 추출물에는 항염증, 항암, 항비만, 골질환 예방, 면역증진 등 기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상동나무의 유전학적 기초 정보 확보를 위해 유전체 분석을 추진했으며 12개의 염색체 서열

을 온전히 해독, 197 메가베이스페어(Mbp)의 고해상도 참조 유전체를 확보하고 2만 2021개 유전자를 확인했다.

상동나무에는 환경 적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군(렉틴 수용체 인산화효소)과 여성 갱년기 에스트로젠 감소와 지방 세포 증가 개선을 도와주는 로가닌(loganin)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군(로가닌산 메틸화 효소)의 개수가 다른 식물군에 비해 많은 것을 발견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향후 확보한 상동나무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갈매나무와 식물의 유전자 다양성과 특이 유전자군을 비교하는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의 보전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기능성 식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섬·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인 상동나무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했다.

의약품 소재 개발 등 활용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 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강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

물연구본부장은 "유전체 수준의 질 높은 유전자원을 확보해 국가 생물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수험생 대상 연말 이벤트 풍성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군은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내년 2월 말까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험생 힐링 이벤트'를 운영한다.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들은 베이식 프로그램 1000원, 프리미엄 프로그램 1만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인은 베이식 프로그램을 1만8000원,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6만2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24~25일 해양치유센터를 이용하는 12살 이하 어린이 100명에 선착순 크리스마스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압 마사지와 수중 운동을 할 수 있는 딸라스 풀과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테라피, 스톤 테라피 등 16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 "올 한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수험생들이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컬리너리 작가 기획 초대전 전남대 치대병원·라한갤러리

신안군은 여성작가 컬리너리 작품 초대전이 전남대학교 치과병원과 호원현대바이라한 갤러리에서 열리고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에서 'Shape:형상' 개인전이 30일까지 열리고, 호원현대바이라한 갤러리에서 'THE PASSAGE OF TIME' 김영자 화백 추모, 컬리너리 작가 2인전이 내년 1월31일까지 열린다.

현대호텔 바이라한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기획초대전은 시민을 위한 특별한 전시회로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며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으며, 호남최초 여류화가 김영자 화백 추모를 위해 동시에 컬리너리 작품에 대한 기획 초대전으로 진행하고 있다.

컬리너리는 신안군 도초면 태생으로 서울, 미국, 프랑스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여성 작가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작품 속 형상은 색이 대조적인 느낌을 발하지만 조화와 안정감을 주며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기까지 하다.

이번 전시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형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도록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 점이 호평을 받고 있다. 컬리너리의 특별한 선을 매개로 이색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적인 것과 비구상적인 것 사이의 분위기를 자신만의 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형상이 지니는 매력과 의미 등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컬리너리 작품은 tvN '남자친구'를 비롯해 SBS '사내맞선', KBS2 '삼남매가 용감하게' 등 다수의 작품에서 배경화면으로 자주 사용되는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읍사무소 방문 환경 지킴이 활동 무안군 무안읍 소화어린이집

무안군 무안읍 소화어린이집(원장 정희선) 원생 10여 명이 지난 13일 무안읍 사무소를 방문해 환경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17일 무안군 무안읍 소화어린이집에 따르면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려요"라는 표어로 가정과 연계해 꾸준히 무안군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원아들은 우유팩, 투명 페트병, 건전지 등을 모아 무안읍사무소를 방문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갔다.

장희선 원장은 "미래 세대들이 살아야 할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보호하는 활동은 유아기에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험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다"면서 "환경지킴이 활동이 어린이집으로부터 많은 지역민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숙아 무안읍장은 "이번 환경 지킴이 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값진 체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지역민들께서도 재활용품 교환사업 등 환경 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쿠폰 해남군, 25일까지 선착순

해남군은 연말을 맞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말 할인행사는 이벤트 기간 내 먹깨비 앱을 통해 주문·결제한 해남군 이용자 대상으로 5000원 즉시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선착순으로 발행된다.

할인 쿠폰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먹깨비' 어플을 다운로드 한 뒤 회원 가입 후 배달, 또는 포장 주문 시 이용할 수 있다. 지급되는 쿠폰은 먹깨비 내 다른 할인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카테고리에서 제한 없이 적용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먹깨비 이용으로 연말 기념 할인 쿠폰도 받고, 착한 소비에도 동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무안읍 소화어린이집 원생 10여 명이 지난 13일 환경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음악으로 강진 알리기' 한정판 음반 열풍

선착순 배포 조기 마감

강진 이야기가 담긴 음반이 인기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음악도시 강진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추진된 한정판 음반의 선착순 배포가 조기 마감됐다.

'음악도시, 강진' 한정판 음반은 당초 20일까지 접수받으려던 것을 지난 13일 조기 마감되며 1000개가 매진됐다. 해당 음원은 '음악도시 강진'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지난 1월 문체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



원사업에 선정된 강진군은 '음악도시, 강진' 조성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11개 읍

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콘서트 '오감 오가며 떠나는 거리 위의 예술인'을 연간 700회 이상 개최했다.

강진 지역 모습을 음악으로 담아낸 창작 공모 '음악으로 강진 알리기 대작전'을 통해 21곡 신곡을 발표했다.

한정판 음반 발매는 생활 속 음악 문화의 확산과 지역을 주제로 창작문화 독려를 통해 음악도시 브랜딩을 이어가고 있는 강진군을 소개하고 노래에 소개된 관광지에 대한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내년 1월 공식 출범

지역산업 발전·주민복지 향상

신안군(재)신재생에너지재단이 전국 군단위 최초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신안군은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중소연회장에서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2년 6월 신재생에너지재단 기본 설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타당성 검토용역 도

중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 개정되면서 늦어졌다.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은 신안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임시의장 선출, 설립 취지, 정관 심의 등으로 총 5건을 심의했으며,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형진 전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이 선임됐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재단은 서류 등록과 법인 설립 신고를 거쳐 2024년 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단일구역 최대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연금이 100억을 돌파한 지금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이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더욱 거듭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재단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